



하나님의 평강

오늘은 로마서 1:7,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서 평강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강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은 Pre-studies 새생활 첫째주 평강이나 Bible Studies 1 의 다섯째 주 안식에 대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 :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소망과 기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인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인사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바란다는 것, 그리고 계속 안녕하시길 바란다는것, 기원과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고 기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만감(萬感)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여러가지에 대한 소견을 가슴 속에 넣어 놓고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혜에 대해 서는 이미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평강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 I. **평화(평안, 평강=peace)가 삼위일체에서 기원하여 신앙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1. **평화는 하나님으로 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hilippians 4:7 (NIV)

⁷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바울사도는 이 구절에서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삼위 간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어서 불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 부터 옵니다.

갈라디아서 1 :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alatians 1:3 (NIV)

³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평을 좇기를 요구하십니다.

12 :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Hebrews 12:14 (NKJV)

¹⁴ Pursue peace with all *people*, and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평강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와 신앙 생활 전과정에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불신앙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 :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Ephesians 4:18 (KJV)

¹⁸ Having the understanding darkened, be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through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존재해야할 인간 간에도 파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죄의 책임을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불행한 일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면의 불화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7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원수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 :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Colossians 1:20 (NKJV)

²⁰and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by Him,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어 화목(reconcile)이 이루어지고, 인간간에, 환경과의 평화의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2.1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은,

로마서 5 :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2 인간간의 화평을 이룰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 : 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 Timothy 2:22 (NKJV)

²²Flee also youthful lusts; but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2.3 세상과의 화목은,

고린도후서 5 :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 Corinthians 5:19 (KJV)

¹⁹To wit,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unto himself, **not imputing their trespasses unto them**; and hath committed un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3. 평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지속적으로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 : 3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평강(평화, 화목)에 대한 우리 공부의 신학적 성경적 기반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며 그 미래에 될 일을 다 그의 마음 속에서 상상하며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화가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를 관장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I. 성령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체를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일평생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에게 다음의 네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는 옛사람의 죽음-자기부정, 다음에는 범사의 말김-평안,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주님과의 일치-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에 대한 공부는 Bible Studies 3, 성화 II, 둘째 주의 '새사람의 행동양식'을 공부바랍니다.)

성령님은 평강으로 이 네 과정에 적용하십니다.

평강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화목된 사람이, 범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말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절대적이며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으로 말마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마음속에, 인간 관계속에, 자기의 환경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지속적인 성령충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가 전인격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마음의 평화가 그의 신앙 생활 전과정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평강을 기원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인삿말을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 :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I. 이 평화의 성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입니다. 완성된 상태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정복되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서 도말된 것이 아닌, 죄에서 해방으로 말미암는 평화이기 때문에, 해방된 자는 죄가 다시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가운데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평화-Perfect Peace-는 없습니다. 완전 평화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않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평화에 대한 노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국가도 자기 방위의 권리를 갖는다(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남을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할 때는 방어를 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저항 비폭력, Pacifism 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끈 간디보다, 안중근 의사를 더 존경합니다. 또 군대에 징집을 양심으로 거부한다는 여호와의 증인의 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방어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주님이 평강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은혜가 더 깊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언제나 저의 카페나 face book, twitter 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로마서 1:7 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십시오.

로마서 1 :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